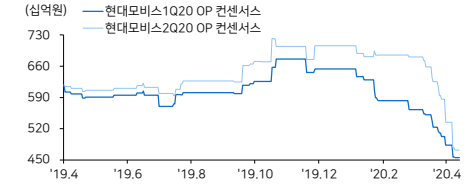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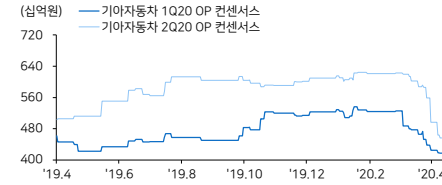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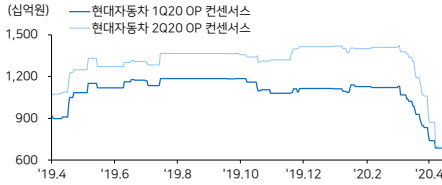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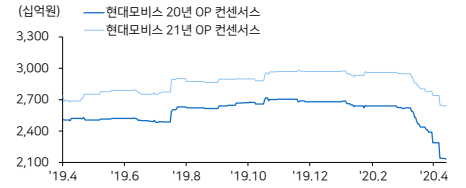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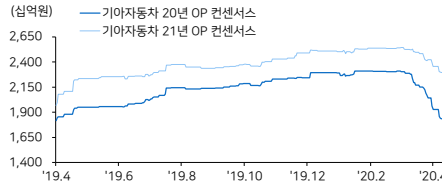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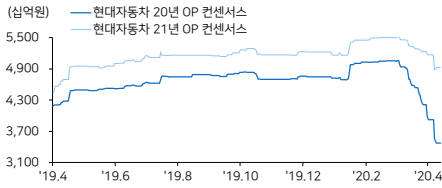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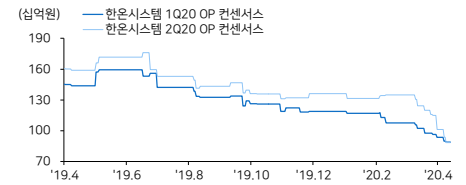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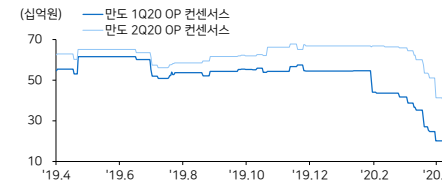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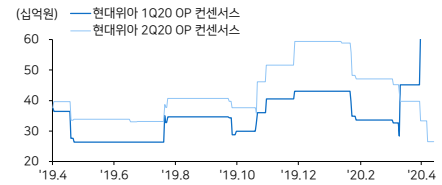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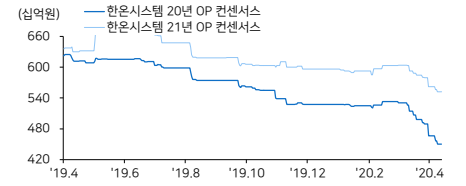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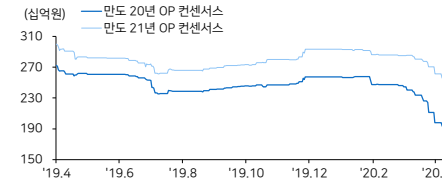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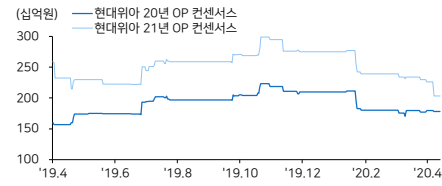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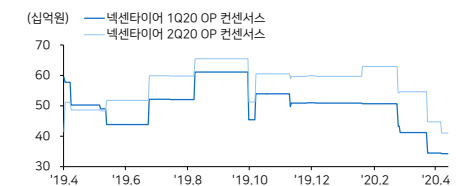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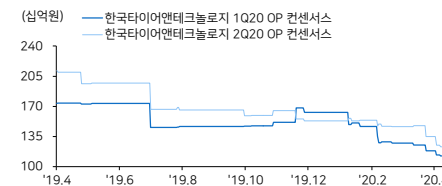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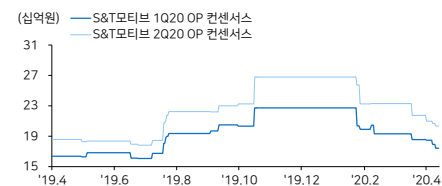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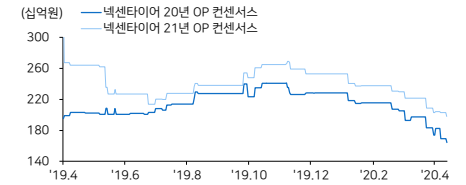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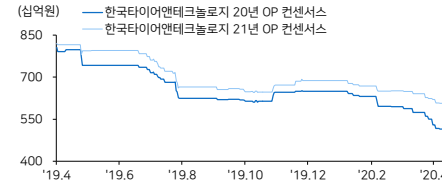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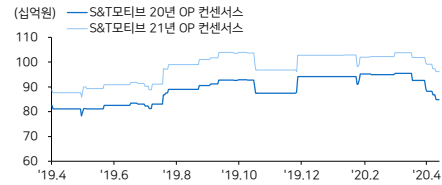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그룹 임원 월급 20% 무기한 반납 (조선일보)

현대차그룹 50여개 계열사 1200여명의 임원들이 이달부터 월급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전 계열사가 경영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임원들이 회사의 '현금 확보'에 동참하는 것. <https://bit.ly/34VfMuck>

현대차, 터키공장 연직 다시 켜다 (디지털타임스)

현대차가 20일 코로나19 여파로 가동을 중단했던 터키공장 가동을 재개, 체코,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 재가동. 현대차 터키공장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주 이상 가동을 중단한 바 있음. <https://bit.ly/3apz98A>

버튼시동·스마트키 탑재...기아차 '2021년형 K3' 출시 (서울경제)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중중형 세단 '2021년형 K3'가 출시. 2021년형 K3는 스탠다드·프레스티지·시그니처 등 전체 3개 트림(등급)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인조 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하는 등 기본 사양을 강화. <https://bit.ly/2XTfB5M>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재가동 2주만에 다시 멈춘다... 20일형 4일간 (M오투데이)

기아차 슬로바키아법인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가동을 중단한 후 24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고 발표. 슬로바키아 공장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날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폐쇄했다 지난 6일 가동을 시작했다. <https://bit.ly/2VKEVX1>

현대차, 미국·유럽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첫 단속 수출 (뉴데일리경제)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수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수출'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 <https://bit.ly/2XQXZM1>

"일본차 비켜" 동남아 장악 나선 현대차 (주간한국)

현대차가 코로나19 피해 속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지배력을 넓히는 데에 힘을 쏟고 있음. 일본의 기세가 상당한 지역이지만, 현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상품경쟁력 등에 견줘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습. <https://bit.ly/3amvz10>

해외 판매 '뚝'...현대차 온라인판매·현지 지원 강화 (이데일리)

현대차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서 수요가 급감하자 온라인 판매와 현지 시장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 공장 '셧다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와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https://bit.ly/3brdcY7>

삼정KPMG "내년 세계자동차 판매량 12% 증가 전망" (서울경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급감한 가운데 내년에는 자동차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삼정KPMG는 내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12.2% 증가한 8,593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 <https://bit.ly/2ytaBhr>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